[홍콩, 2013년 11월] [수산물]

1.홍콩 식품 이슈

□ 전복요리 등 고급연회 자제하는 중국 부호객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직자들이 받는 접대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히자 이번 11월의 황금연휴에 홍콩을 방문하여 "고급연회"를 즐긴 여행자가 많이 줄었다고 보도
- 홍콩관광발전국에 따르면 이번 황금연휴에 중국 방문객수가 약 9백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하였지만 소비는 예전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함
- 아일(阿一)전복 창업자이자 전복의 대부라고 불리는 양관일(楊貫一)은 "이번 황금연휴의 매출 이 작년보다 약 30% 줄었고, 찾아오는 고객은 약 70% 줄었다"고 발힘
- 국가주석의 영향도 있지만 홍콩이 이미 중국에 개방한지 10년이 넘었고, 더 이상 홍콩이 중국 관광객들의 최고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양관일 사장이 밝혔음

□ 매각진행 중이었던 홍콩 최대 대형유통업체 파킨샵 매각 철회

○ AS왓슨이 경영하는 파킨샵은 홍콩과 마카오, 중국에 점포 345곳을 두고 있으며 작년 매출액이 217억 홍콩달러(약 3조1357억원)에 이름. 파킨샵은 소매체인으로 홍콩에서 웰컴(惠康)과 양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각을 철회한다고 밝혔음

2. 수산물 수입동향 및 전망

□ 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USD, %)

SITC 코드		10월	당월	1-10월 누계	
	구 분	금액	전년대비 (%)	금액	전년대비 (%)
036	냉장/냉동/건조/염장의 갑각류, 연체류 및 무척추류	165,150	4.7	1,505,863	7.2
034	신선/냉장/냉동의 어류	84,211	15.2	790,310	10.5
037	가공 어류, 갑각류, 연체류 및 무척추류	53,570	16.4	443,607	6.0
035	건조/염장/훈제의 어류 및 필렛	29,336	-14.9	294,920	-17.1
20089961	조미김	1,843	29.8	14,951	47.4
29297	기타 해조류	393	6.7	3,350	44.0
합계		334,503	7.0	3,053,001	5.0

※ 자료 : 홍콩무역발전국(HKTDC) 수출입통계 자료

- □ 10월말까지 홍콩 수산물 수입액은 US3,053,001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
- □ '13년 10월 말까지 냉장/냉동/건조/염장의 수산물 갑각류, 연체류 및 무척추류는 US 1,505,863 천불 수입되어 전년 동기대비 7.2% 증가
 - 9월말부터 수요가 증가하는 상해 털게 수확이 많아 단가가 낮아졌고, 수요는 높아져 수입 도 증가하였음

- □ '13년 10월 말까지 신선/냉장/냉동의 어류는 US 790,310천불 수입되어 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
 - 횟감 어류 수요가 증가하여 신선/냉장/냉동 어류 수입액도 전년 동기대비 10.5%증가
- □ '13년 10월말까지 가공 어류, 갑각류, 연체류 및 무척추류 수입액은 US 443,607천불로 전년 동 기대비 6% 증가
- □ '13년 10월 말까지 건조/염장/훈제의 어류 및 필렛 수입액은 US 294,920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17.1% 감소

□ 주요 품목 수입동향

(단위: 천 USD, %)

품목	'12.1 - 9	'13.1 – 9	증감률	1위		2위		3위		한국산
67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금액
건 해삼	279,427	283,618	1.5	일본	151,824	미국	19,493	멕시코	15,520	3,276
건조/염장/ 훈제 전복	63,992	75,318	17.7	일본	29,359	남아프리카	20,979	잠비아	8,150	310
신선 굴	21,964	24,358	10.9	프랑스	6,253	미국	5,180	호주	4,006	343
냉동/건조/ 염장/훈제 굴	19,004	27,746	46	일본	12,264	한국	10,051	미국	2,941	10,051
김	10,143	14,951	47.4	중국	5,151	태국	5,009	한국	4,428	4,428

※ 자료 : 홍콩무역발전국(HKTDC) 수출입통계 자료

- □ 냉동/건조/염장/훈제 굴 : '13. 10월말까지 냉동/건조/염장/훈제 굴 수입액은 US27,746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
- 현지 건조 굴 수요가 높아지자 한국 건조 굴 재배사들이 재고에 있는 굴을 홍콩으로 수출하기 시작함. 한국산 건조 굴 US10,051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221.4% 증가
- □ 신선 굴 : 10월말 신선 굴 수입액은 USD 21,964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
- 사이즈가 크고 신뢰도가 높은 프랑스산 신선굴의 인기가 증가하여 작년 동기대비 수입액이 46.0% 증가
- 미국산 굴은 타국산보다 사이즈가 작아 주로 뷔페에 많이 사용되며, 높은 품질의 굴을 찾는 소비자들이 미국산보다는 타국산 생굴 전문점으로 이동하여 미국산 생굴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9.3% 감소
- □ 김 : 10월말 수입액은 USD 14,951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47.4% 증가
- 홍콩 유통매장들이 소비자 홍보용으로 조미김을 대량 수입하고 있어 조미김 시장이 확대되어 10월말 현재 47,4% 증가

[홍콩, 2013년 11월 수산물 신선연어 동향 분석]

□ 생산

○ 홍콩에서 해산물 양식장이 없어 전 소비량을 수입에 의존함

□ 소비

○ 90년도 말부터 일식당 인기가 높아지면서 연어가 보편화되었으며, 현재 홍콩에서 소비가 가장 높은 생선으로 2006년부터 연간 10톤 이상 수입되고 있음

- 육질이 쫄깃한 생선보다는 씹는 맛이 부드러운 생선을 선호하여 연어, 참치, 능성어 등의 소비가 광어, 조기보다 훨씬 높음
- '12년에는 총 16톤의 연어가 홍콩에서 소비되었음
- 홍콩에서는 연어를 구이, 찜, 볶음, 탕 등 여러 가지 요리법으로 먹고 있지만, 연어회와 연어초밥을 가장 즐겨 먹음
- 일식당 뿐만 아니라, 서양식당, 중식당에서도 연어요리를 찾을 수 있으며, 연어의 맛과 육질을 현지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즐겨 찾는 편임

□ 홍콩 신선연어 수입동향

(단위: US천불, %)

순위	수입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월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노르웨이	108,239	99,877	-7.7	92,325	-7.6	102,891	34.1
2	호주	3,162	785	-75.2	685	-12.8	633	16.4
3	영국	1,466	331	-77.4	289	-12.6	1,151	3553
4	캐나다	2,492	62	-97.5	140	124.3	250	162.4
5	뉴질랜드	2,674	2,198	-17.8	820	-62.7	243	-65.8
	합 계	118,569	103,440	-12.8	94,394	-8.7	105,953	32.7

= 무한대 *극소 @자료 없음 ..1000% 이상 상승

※ 자료 : 홍콩무역발전국(HKTDC) 수출입통계 자료

- '13년 10월까지의 홍콩 연어 수입액은 US 105,953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32.7% 증가
- 홍콩에서는 노르웨이산 연어가 제일 많이 수입되며 홍콩 연어시장의 약 90% 점유하고 있음
- '13년 10월까지 홍콩의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액은 US 102,891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34.1% 증가
-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0년에 중국 정치운동가 유효파(劉曉波)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하여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힘
- 이러한 영향으로 홍콩도 노르웨이산 대체품으로 스코틀랜드산 연어 수입 증가

□ 홍콩 신선연어 판매가격



□ 판매현황

- 유통매장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연어는 초밥 및 회감 연어임
- 구이용 필렛 및 국거리용 어두도 있지만 유통매장에서는 마진이 높은 회감 연어를 선호하여, 판매 되는 총량의 약 85%는 회감 연어임
- 홍콩에는 약 4,000곳의 일식당이 있으며 이중 약 80%는 초밥 및 회를 취급하는 일식당임
- 최고급 일식당은 일본산 연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외에는 노르웨이산 연어를 사용하고 있음
- 호텔에서는 연어 회 및 초밥을 뷔페에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소비자들은 핑크색 연어를 선호하기에, 색깔이 짙은 노르웨이산 연어가 식당 재료 바이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음

□ 시사점

○ 현재 홍콩에는 한국산 연어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 한국산 신선연어 인지도가 거의 없으나 연어 는 홍콩시장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생선 중 하나이므로 향후 한국에서 연어가 대량 양식할 경우 홍콩시장 신규수출 품목으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